



건기 좋은 계절 사려니 숲으로

물찾오름 정상에서 절경을 바라보는 관광객들.



동박새.

큰오색딱다구리.

사려니숲길 에코힐링체험 25일 개막

거리두기 하는 사이 어느덧 늦가을
자연에서 '코로나 일상' 새로운 활력

'거리두기' 하는 사이 계절은 바뀌고 어느덧 늦가을 길목에 접어들고 있다. 선선하다 싶더니 어느새 쌀쌀해진 바람에 제법 옷깃을 여미게 된다. 그래도 청명한 하늘을 벗 삼아 언제 어디로든 발걸음을 옮겨도 좋은, 참 건기 좋은 계절이다.

가을 정취를 제대로 즐기기에 건기여행만한 것이 없다. '코로나 일상' 속 건강과 힐링, 치유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건는 이들에게 초록빛 치유를 선사하는 제주의 사려니숲길에서 올해로 열두번째 제주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 에코힐링체험' 행사(10월 25~29일)가 열린다. 지난 8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취소됐다 다시 열리게 됐다.

▶치유·힐링의 공간 사려니숲길=도내외 탐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사려니숲길은 제주의 건기 여행지이자 치유·힐링 공간으로 손꼽힌다. 질푸른 녹음을 즐기고, 청정한 공기를 마시며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숲길로 각광받고 있다.

'사려니숲'은 유네스코가 지난 2002년 지정한 제주생물권보전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숲길은 제주시 봉개동 절물오름 남쪽 비자림로에서 물찾오름을 지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사려니오름까지 이어지는 15km 가량의 숲길을 말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한남연구시험림에 위치한 사려니오름의 명칭을 따 사려니숲길이라 부르고 있다. 사려니는 '살안이' 혹은 '술안이' 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에 쓰이는 '살' 혹은 '술'은 '신성한 곳' 또는 '신령

스러운 곳'이라는 뜻이다.

해발고도 500~600m에 위치하고 있는 사려니 숲길은 완만한 평탄지형으로 주변에는 물찾오름, 말찾오름, 괴평이오름, 마은이오름, 거린오름, 사려니오름 등과 천미천계곡, 서중천계곡 등이 분포하고 있다.

식생도 다양하다. 졸참나무, 서어나무, 산딸나무, 때죽나무, 단풍나무, 참꽃나무 등 78과 254종이 분포하고 있다. 육식성 포유류인 오소리과 제주족제비, 팔색조 등이 서식하고 있다. 큰오색딱다구리, 박새, 곤줄박이 등 산림성 조류와 원앙, 검은등기해오라기 등 산림 습지 주변에 서식하는 조류도 관찰할 수 있다.

▶'코로나 일상'에 심표... 또다른 추억=지난해까지 열 한차례 선보인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행사에서 펼쳐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탐방객들에게 색다른 추억도 안겨주고 있다.

숲속 나무와 풀, 새소리를 배경삼은 숲속의 작은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에서 안식을, 명사들의 자연치유와 인문학 강의, 북 콘서트를 통해 지혜를 얻기도 한다. 숲에서 얻은 재료 등으로 다양한 소품을 만드는 체험 등은 특히 가족단위 탐방객들의 호응 속 숲에서의 추억을 더 각별하게 만들었다.

올해는 코로나19 거리두기를 감안해 프로그램이 축소되지만, 무대공연과 숲속 힐링 명상, 전시회는 진행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 인증샷 이벤트에도 참여하면서 '인생사진'도 남겨보고, 사려니숲길 중앙에 위치해 있는 월든 '치유와 명상의 숲' 등 곳곳 포인트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산림욕도 즐기면서 사려니숲길의 진가를 만끽해 볼 것을 권한다. 사려니숲길에서 코로나19로 빼앗긴 일상에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40년 전통 수제 신사복 전문

골덴라사



맞춤 양복은 명품(名品)입니다.
맞춤 양복은 오직 한사람만을 위한
예술품입니다.



추동복 신제품 대량입하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골덴라사 | 제주시 남성로 166(남문로터리 서쪽) T. 722-3679, H,P 010-7622-3679